순천 정·재계·시민들, 지역농업 발전 머리 맞댔다

제1회 순천농협 미농포럼 성황
농협단체 등 300여명 참석
지역 맞춤형 농업정책 필요
전문가 깊이 있는 강의·토론
"농업 직면한 문제 나누겠다"

순천농협이 지난 6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파루홀에서 '제1회 순천농협 미농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순천농협 제공

순천 정·재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순천농협은 지난 6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파루홀에서 '제1회 순천농협 미농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농협,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의 길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 등 우리 농업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역 농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허상만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문수 국회의원, 노관규 순천시장, 주철호 농협중앙회 순천시지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및 농민 단체장, 농업 관련 공무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하여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며, 순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업 정책의 필요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농협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격려를 보냈다.

포럼에서는 농업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 강연은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I, 글로벌 시대의 순천 농업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순천 지역의 미래 농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김창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장이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뉴빌딩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순천 지역이 경제, 지역 활력, 환경 및 안전 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강연은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이 "리더의 희생은 둠벙이다"라는 주제로 농협의 존재 이유가 농민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농협이 농민과 농촌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특히 농민과 농촌의 생존을 위한 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포럼의 종합토론은 이상욱 전 농협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아 '순천농업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은 이기웅 순천농협 사외이사, 오성재 순천농협 청년이사,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최신철 순천시 농업정책과장, 현영수 조합원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패널들은 순천 지역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은 "이번 미농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히기 위해 농협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개최
이달 27~29일 3일간

순천시는 '2024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길 위에서 맛나는 멋'이라는 주제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순천시 중앙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페스티벌은 매년 가을 순천의 1번 도로인 중앙로에서 열린다.

지난해 참여했던 한 참가자는 "평소 차가 다니는 도로 위에서 다양한 체험과 순천의 음식들을 맛보면서 거리 곳곳에서 공연이 펼쳐져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며 "올해도 가족들과 함께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축제는 순천의 고즈넉한 문화와 도시의 활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로, 순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푸드마켓, 아트마켓, 정원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된다.

27일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개막 축하공연은 비스타·싸군, 나영, 황인욱, 브브걸이 출연하고 28일 공연으로는 숀, 29일에는 랩퍼 비오가 출연한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역산업 특성화 초청 강연
여수 한영대

여수 한영대학교(총장 임정섭)가 지난 4일 대학 공학관에서 '2024년 지역산업 특성화 교육과정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초청 강연을 마지막으로 한영대 산학교육센터가 주관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인 현장친화 교과목 운영이 마무리됐다.

이날 강연은 전남도 주력산업 중 하나인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인주 클러스터장과 인하대 신현돈 교수, 포스코퓨처엠 민경준 고문(前 포스코퓨처엠 대표이사)이 참가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산업 등 신 산업분야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등을 강연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인주 클러스터장은 수소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 수요 및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소경제로의 이행에 있어 대량의 수소 생산과 저장, 공급시스템이 요구되며, 설비투자에 맞춰 수소 전문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하대 신현돈 교수는 탄소중립과 석유가스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석유산업이 다른 산업인 토목, 플랜트, 공학설계, 제철, 조선, 화력발전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기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구심점이 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퓨처엠 민경준 고문도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전기차의 핵심 성능을 소개하고 포스코 그룹이 양극재와 음극재 소재 생산, 원료 확보, 리사이클링에 이르기까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배터리소재산업을 선도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영대 박근욱 교수 등도 품질분석과 수질분석을 주제로 품질분석 실험 시 사용되는 기자재와 초자류, 시약의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분석 실험 등을 소개했다.

한영대학교 산학교육센터 정문 센터장은 "지역산업 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인력 수요에 탄력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20년째 "한가위 온정 나눔"
GS칼텍스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는 2024 한가위를 맞아 여수지역 소외이웃에게 1억원 상당의 성품을 전달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행사장에서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정철섭 여수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겸 생산본부장,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 GS칼텍스 자원봉사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GS칼텍스와 함께 하는 한가위 사랑의 온정 나누기'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업비 1억원은 여수지역에서 생산된 20kg 쌀 1270포를 지역 내 130개 복지기관에 전달하고, 식료품 세트 700개를 저소득 가정 600세대와 북한 이탈주민 100세대에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선물세트는 GS칼텍스와 여수시, 복지기관이 공동으로 수혜 대상 세대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명절 음식 준비에 필요한 16개 품목으로 구성했다.

정기명 시장과 백인숙 시의장, 정철섭 민간위원장, 김성민 본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사업비 전달식 후 식료품 선물세트 제작과 포장에 참여했으며, GS칼텍스 인턴사원 25명도 포장 작업에 참여했다.

김성민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포근하고 온정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수시와 함께 지역사회 소외 이웃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시장은 "GS칼텍스는 2005년부터 20년간 우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주고 있다"며 "우리 이웃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추석을 맞이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여수의 행복과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추석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김철우 보성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성군의회 의원들이 함께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추석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7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에서 장보기를 추진했다.

이날 김철우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이 유통환경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장보기를 진행했다.

김철우 군수는 "추석맞이 장보기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부여함은 물론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전통시장의 안정적인 매출액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은 12일 녹차골보성향토시장, 13일 조성5일시장, 14일 벌교전통시장에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한 장보기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고흥군, 미래 항공기 평가기반 구축사업 착수

고흥군이 '친환경 항공기용 전기추진체 시스템 평가 기반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고흥 썬밸리리조트에서 참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기관별 추진계획 발표, 협력사항 협의 등의 사업착수 회의가 진행됐다.

첫날에는 전라남도, 고흥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전남대학교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96억4000만원을 투입해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 내에 성능평가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고흥군은 전기추진체의 시험평가, 실증, 인증을 아우르는 미래항공 전주기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평가센터는 전기동력 및 충·방전 평가, 다축 추력 시험, 모사 환경시험, 아이언버드 평가 등 부품 및 기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 지역 주도형 기업육성 및 유치, 해외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판로개척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평가센터가 구축되면 국내 전기추진 미래 항공기의 핵심 부품이 고흥 평가센터에서 성능 시험을 받게 되며,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 항공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우수 항공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흥군이 전기 동력 항공기 산업의 국내 주도권을 선점하고 미래 항공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항공산업 발전과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항공센터 일원에 4만평 규모의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